

홀트소식

SUMMER 2024 VOL.213



홀트소식

www.holt.or.kr



여름 이야기

홀트아동복지회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가 캄보디아 트라피앙 안전 지역에 있는 홀트드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캄보디아 아동들과 5박 7일간의 일정을 함께하며 더 큰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관련기사 12-15쪽)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사 정용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린다백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스티브 모리스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 사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 (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미추홀 032)548-160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 해외사업장 02)331-7040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Contents

아동·청소년복지

- 04 “날개를 활짝 펴 세상 위로 날아오르길”
- 06 ‘파랑새’ 여러분은 진정한 선순환의 주인공들입니다
- 08 “우리 가족 이대로만 깨끗이 살자!”
- 10 태양이의 단어,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복지

- 12 봉사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던 5박 7일 현장 속으로
- 16 엄마들의 반가운 변화를 알리는 소리, ‘Hi-Change’
- 18 긴급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장애인복지

- 20 행복한 웃음과 풍성한 나눔이 가득했던 홀트학교 봄운동회
- 24 “홀트학교는 제2의 집, 제자들은 저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 26 문화예술로 연결되는 모두의 세상을 꿈꾸며

지역사회복지

- 28 요리할 줄 아는 남자, 이전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 31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힐링캠프 ‘느그나영 굽들락 제주’

국제개발협력

- 34 전 세계 아동들에게 행운을 선물하는 지름길, ‘행선지’

캠페인

- 36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나눔스토리

- 38 자립준비청년의 삶 가운데 빛을 선물한 ‘주님의 교회’
- 40 아이와 함께 달리며, 행복한 나눔을 배워요!
- 42 “결연아동의 성장 모습은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 44 함께하여 더욱 빛나는 ‘해성사랑’ 탐리더스 팬덤기부

46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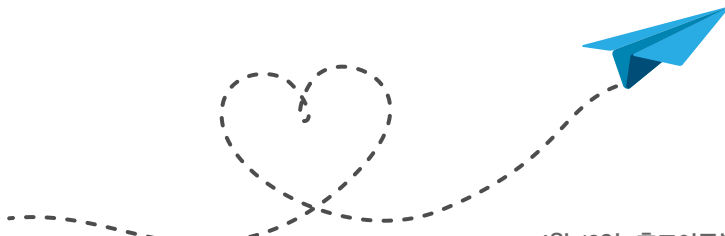
통권 | 213호-계간 발행일 | 2024년 7월 25일 발행인 | 김정은 편집인 | 신미숙
 발행처 | 나눔마케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 www.holt.or.kr
 후원문의 | 02-331-7073-6
 후원계좌 |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r@holt.or.kr 디자인 | 일투디투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좋은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신’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연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신 전환방법 :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주세요

“날개를 활짝 펴 세상 위로 날아오르길”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7기 발대식 현장



4월 13일,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는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하 ‘파랑새 꿈날’) 7기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파랑새, 꿈날’은 시설청소년들이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 역량을 키워 홀로 설 수 있도록 매년 기수별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1년간 진로, 경제, 정서 등의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도현 MC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새로 선발된 7기 멘티, 심리전문가 멘토, 사례관리자가 참석했고,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 이은정 복지사업본부장, 윤택 흥 홍보대사와 정시은 탐리더스 위원,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시설청소년의 힘찬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파랑새 꿈날’ 사업은 2018년부터 현대백화점그룹의 후원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7년간 누적후원금 13억원으로 전국의 시설청소년 총 240여 명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4년부터는 사업 개편을 통해 고등학교 1~3학년 청소년들 모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진로장학금, 자립장학금, 교육 및 멘토링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이날 발대식에는, 특별히 멘티들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파랑새들이 보석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 속에 간직한 저마다의 꿈을 다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격려사에서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멘티들을 위해 후원사와 멘토 등 많은 분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함께하는 만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멘티들이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윤택 홍보대사는 “지금 돌아보니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이 나의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며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룬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 정시은 탐리더스 위원



▲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

힘든 순간은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자산

이어 정시은 탐리더스 위원과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가 각각 특별 강연 ‘Don't Be Fooled!(속지 마세요!)’와 ‘기델 어른이 되어줄게’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을 통해 정시은 위원은 “시설 청소년들은 모두가 경험해야 할 이별을 조금 일찍 경험했기에 더욱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말로 파랑새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김성민 대표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아도, 다시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자산이 되어줄 것”이라며 자립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멘티들을 격려했습니다.



2024년에도 홀트아동복지회와 현대백화점그룹은 시설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위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파랑새들의 자립에 함께하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이채영

‘파랑새’ 여러분은 진정한 선순환의 주인공들입니다

윤택 홍보대사의 자립준비청년 격려 메시지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하 ‘파랑새 꿈날’) 7기 발대식이 열린 날, 홀트아동복지회의 윤택 홍보대사님이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파랑새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주셨습니다. 평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윤택 홍보대사님을 만나 파랑새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Q. 2022년 ‘파랑새 꿈날’ 5기 때 오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소감 한 말씀 전해주세요.

예전에는 자립을 앞둔 고등학교 1~3학년 시설청소년들을 보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아이가 이 모진 세상을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현대백화점그룹이 후원하는 홀트아동복지회의 ‘파랑새 꿈날’에서 퇴소 이후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용기를 심어준다니,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그런 지원을 받는다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가슴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들이 성인이 되어 ‘파랑새 꿈날’의 좋은 취지를 깨닫고 나면 자신도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른바 진정한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Q. 2008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2008년 6월 위촉). 처음 어떤 계기로 홀트와 함께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제가 먼저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아와서 옷을 기증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환영해주시면서 세계 홍보대사 활동을 제안하셨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저를 홍보대사로 삼아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지 않았나 싶어요(웃음). 지금도 외부에서 ‘홍보대사 활동하고 계신 곳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홀트아동복지회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나름 자부심도 느끼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Q. 그동안 홍보대사로서 홀트아동복지회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함께하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한부모가정,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홀트 대바자회’ 행사에 여러 번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라 기저귀나 유아용품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고,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종이기저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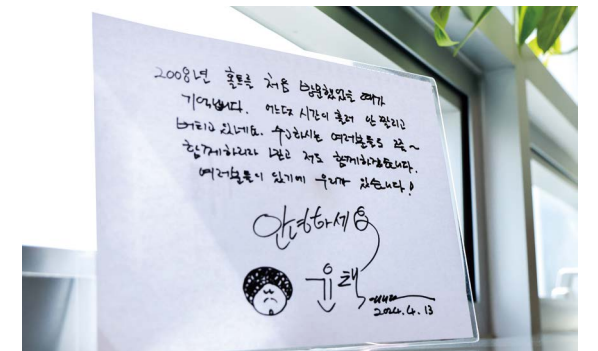
여러 번 재활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에게 아기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바자회의 취지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바자회에 적극 참여해서 판매하고 홍보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Q.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시설청소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담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와요. 나의 노력과 기회가 서로 딱 맞는 순간, 그게 바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행운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예요. 언제 그런 행운이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한 길을 향해 꼭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행운에 닿게 돼 있어요.

학업이든 취업이든 무언가에 도전해본 사람과 미리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은 내 꿈이 무엇인지, 왜 꿈을 가져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계속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홀트아동복지회의 ‘파랑새 꿈날’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행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얼마든지 더 많은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시길 바랍니다.

글 홍보팀장 오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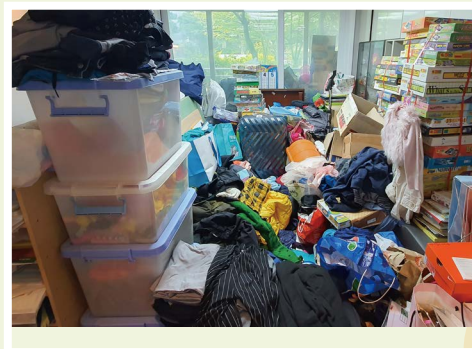


▲ 홀트아동복지회에 전하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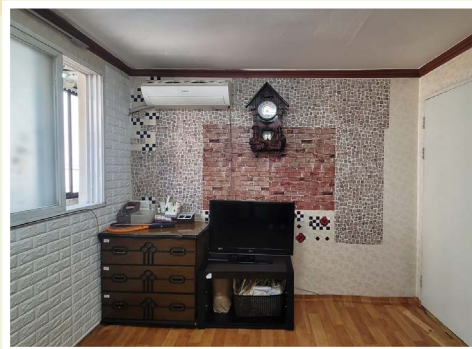
“우리 가족 이대로만 깨끗이 살자!”

학대피해아동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홀트아동복지회의 ‘우리가족 울타리이음’은 학대피해아동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원가정 기능 회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우리가족 울타리이음’을 통해 지저분했던 집도, 어두웠던 가족의 마음도 반짝반짝 깨끗해지고 환해진 후기를 들어볼까요?



개선 전후 사진



열악한 주거환경은 가정 내 학대 유발요인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건수 중 약 81.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학대행위자의 82.7%가 부모라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 내 학대가 일어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가족이 처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쾌적하지 못한 주거 공간은 양육자에게 스트레스 및 우울을 일으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육을 저해합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정서 및 신체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 환경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경험, 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내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충과 악취가 심했던 태형이네의 변신

태형이는 지적장애 3급 외할머니, 지적장애 3급 엄마, 그리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남동생 태민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랑 태형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아빠와의 분리를 위해 외할머니 거주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프신 외할머니 집에는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매우 많았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해충약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지만 해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형이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빠가 보내주는 양육비 월 20만원으로 4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형이는 지각과 무단결석이 잦아 학교 선생남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태형이의 동생 태민이는 4세인데도 가정 내에서 배변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했습니다.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한 단어만 말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주로 “아이” 정도의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안 되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도 또래관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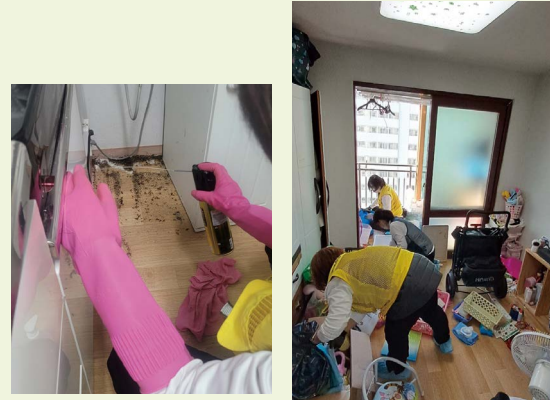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태형이네 가정을 위해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으로 해충방역과 정리정돈을 지원했습니다. 청소하고 나니 해충이 박멸되고 생활용품 등이 정리정돈 되어 전반적으로 위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태형이네 가족은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변신한 모습에 놀라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부모의 양육의지와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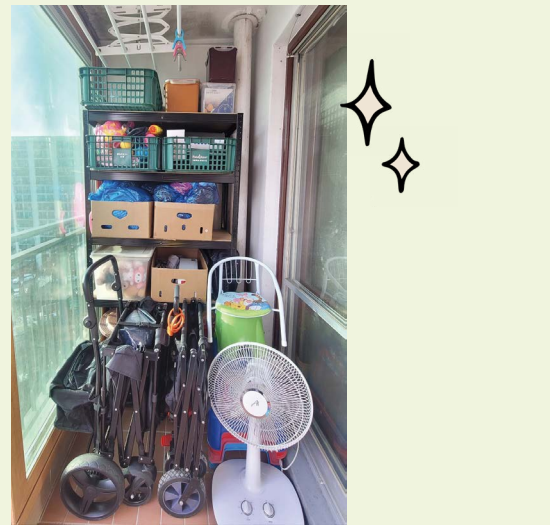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은 세아그룹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23년 1년간 학대피해아동 31가정에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가족들은 주거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서비스 지원 이후에도 직접 바퀴벌레 약을 설치하고 집을 정리하는 등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집을 청소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족 울타리이음’의 지원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쌓인 육아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호흡기 치료를 받던 아동이 쾌적해진 주거환경 덕분에 건강이 호전되어 치료를 종료한 사례도 있었고, 부모가 이전과 달리 양육에 의지를 갖게 되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지역을 확장하고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전국 사업으로 ‘우리가족 울타리이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학대피해아동에게 희망과 기쁨의 기억을 선물하는 그날까지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태형이네 정리 전과 정리 중



▲ 태형이네 정리 후

태양이의 단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들의 삶과 추억이 담긴 에세이집 《나의 단어》, 두 번째 이야기

《나의 단어》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 활동 결과물로 제작된 에세이집입니다. 5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세방이의순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위드유 커뮤니티를 통해 자기만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경험, 꿈과 다짐이 담긴 글들을 작성했습니다. 그 글들 중 감동을 주는 에세이를 하나씩 선정해 실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위로와 안식을 얻길 바랍니다. - 편집자주



열일곱 살이 됐을 때, 나보다 다섯 살 어린 남동생과 쉼터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했다. 입소 당시 이전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슬펐지만 한편으론 동생을 챙겨줄 누군가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러다 퇴소할 때가 되었다.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돌보아 했기에 최대한 자립 시기를 늦추려고 했지만, 자립이라는 선택지밖에 없었다.

예상보다 이른 자립이었기에 집부터 열심히 알아봤다. 통장에 있던 돈, 자립정착금, 아르바이트로 모아냈던 돈을 보태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집을 마련했다. 추운 겨울날 이사를 했는데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틀어도 방에 온기가 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난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지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불안정한 시기가 지나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다. 내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걸 인식했던 것이 그때쯤이었던 것 같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굴곡 많은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시작점이 지금이란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

1년 후, 자립을 앞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 캠프에 참석했다. 구성원은 또래 친구, 형, 누나, 동생 등 다양했다. 시설 입소 이후 내 또래와의 만남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끈끈한 친밀감이 생겼다. 그러다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제껏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날아쳤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와 비슷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사회복지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차츰 성적이 올랐고, 마침내 원하는 대학교의 원하는 과로 진학했다. 이때부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활동도 시작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도 바꾸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일하기보다 나와 비슷한 당사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렇게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한울'이라는 광주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한울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서로의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울타리'를 의미한다.

그 무렵, '월간 식구'도 시작했다.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회적 기업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되어주었다. 월간 식구는 이분들과 한 식탁에서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는 모임이다.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은 가족과 밥을 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런 이유로 월간 식구는 더 의미가 크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나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에 살아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 볼 수 있는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며 이 글을 읽는 지역의 당사자라면 누구든 환영이다.

한울에서는 월간 식구와 함께 '드라마 쌀롱'을 기획하여 한 달에 한 번 자립에 필요한 교육이나 강의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기여형 자조모임을 꾸려 '받는 사람에서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의 봉사과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월간 식구를 진행하면서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해 부모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께 받았던 도움을 꼭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선순환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도움을 주면서 얻는 행복이 받는 행복보다 더 컸다. 이런 행복감은 처음 내가 꿈을 가지게 된 동기를 상기시켜주었고 꿈꾸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라는 말이 있다. 가진 돈을 모두 집구하는 데 쓰느라 수중에 한 푼도 없이 시작해야 했던 자립의 과정 속에서 겪은 많은 어려움은 혼자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앞으로 다가올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살았다. 그러다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당사자들을 만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이 나와 함께해주기 시작했다. 덕분에 외나무로 자란 내가 어느새 푸르게 우거진 숲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나의 숲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곁을 채워 숲이 되어준다면 곧 길이 되고 더 큰 숲이 될 거라 믿는다.

글 자립준비청년 박태양

봉사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던 5박 7일 현장 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봉사활동기



▲ 봉사단 파견식



홀트아동복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와 더 큰 꿈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이하 봉사단) DREAM-TEENS를 구성하고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가 있는 트라피앙 안찬 지역에서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시티헨즈컴퍼니와 ㈜제노레이의 후원으로 운영된 이번 봉사단은 2024년 2월,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봉사에 열망을 품은 중고생 10명을 봉사단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봉사단장 유해연 시티헨즈컴퍼니의 대표님을 비롯해, 김중석 그림책작가님, 권현수 재능기부봉사자님, 그리고 봉사단원을 이끌어줄 대학생 봉사자까지 함께해 더 단단한 DREAM-TEENS 봉사팀이 되었습니다.

사전모임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봄이 찾아오는 계절 3월, 봉사단의 1차 사전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아온 10명의 봉사단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이며 파견국 캄보디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부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주 후 벚꽃이 한창이던 4월에 2차 사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진행된 두 번째 모임에서는 현지에서 진행할 활동들을 미리 숙지해보며 단원들이 각 활동의 리더가 되어 수업을 진행할 생각에 설렘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5월의 3차 사전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원들은 각자 맡은 활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읽어보고, 활동 진행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며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캄보디아 아이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첫째 날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 DREAM-TEENS 봉사단 파견식이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선생님들과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봉사단은 6시간의 비행 끝에 늦은 밤 프놈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만날 친구들을 꿈에 그리며 첫날이 저물어갑니다.



▲ 봉사단 파견식 선서 장면

두근두근 첫 수업 시간!

둘째 날

현지에서의 첫날, 단원들은 들뜬 마음으로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NPIC)’을 방문해 김성철 총장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현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로 이동한 단원들은 오리엔테이션 후, 소피아 선생님이 정성들여 준비한 한식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NPIC) 견학

첫 수업으로 아이들과의 라포(rapport,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준비한 ‘나를 소개합니다’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홀트드림센터 아이들과 봉사단원들은 자신을 소개한 후 서로의 언어로 이름표를 만들고 예쁘게 꾸몄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에도 함박웃음을 주고받으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은 한국에서 준비해 간 다양한 종류의 과자로 과자집을 만드는 시간! 달콤한 과자 향기가 교실 가득 퍼지자, 먹고 싶은 마음을 꼭 눌러 참으며 과자집 만들기에 열중한 아이들의 모습이 기특하고 귀여워 봉사단원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은 오늘 참여하지 못한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 과자집 만들기

“애들아, 너의 소원은 뭐니?”

셋째 날

시차에 완벽히 적응한 봉사단원들은 이른 아침을 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홀트드림센터로 향합니다. 저 멀리 홀트드림센터 주변을 서성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을 위해 봉사단원들은 한국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120명의 홀트드림센터 아이들 얼굴사진을 담은 키링과 어두운 밤길을 밝혀줄 작은 랜턴입니다. ‘나만의 예코백 만들기’는 친환경 소재의 천가방에 다양한 미술도구로 짝꿍 얼굴, 자연풍경 등을 그린 후 키링과 랜턴을 달아보는 수업인데요, 자신의 얼굴이 있는 키링을 받은 아이들은 서로의 키링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불빛이 들어오는 랜턴으로 장난을 치며 행복했습니다.

“얘들아, 너의 소원은 뭐니?”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옛된 아이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에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소원을 얘기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인형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은 목에는 소원인형을, 어깨에는 자신만의 에코백을 메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 DIY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행복한 생일파티와 신나는 미니올림픽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아침, 오늘은 120명의 홀트드림센터 아동들이 모두 모여 ‘Clean & Clear Campaign’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네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거리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는 봉사단원들과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후 ‘소중한 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봉사단원들이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생일 케이크와 선물을 나누고, 다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큰 눈망울을 가진 순수한 표정의 아이들 얼굴을 보며 봉사단원들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기다린 시간! 미니올림픽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교실에서 각각 집중력, 유연성, 협동심 강화게임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은 각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승패에 상관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봉사단원들도 온몸이 땀범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미니올림픽이 종료되고, 출출해진 아이들과 봉사단원들은

K-FOOD 떡볶이와 튀김을 먹으며 즐거웠던 미니올림픽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 미니올림픽

다음을 기억하는 작별의 순간



홀트드림센터 방문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아이들에게 자석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자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함께 만들며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봉사단원들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가정을 방문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아이의 가족을 만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드림센터를 떠나는 시간, 봉사단원들과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다음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타던 DREAM-TEENS 봉사단원들과 떠나는 버스를 끝까지 따라오던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긴 작별인사를 나눴습니다.



▲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 가정방문

DREAM-TEENS의 든든한 ‘키다리아저씨’, 시티헨즈컴퍼니 유해연 대표와 김종석 그림책작가



유해연 대표

2024년 3월 9일, DREAM-TEENS의 첫 사전 모임이 있던 날 당찬 발걸음으로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DREAM-TEENS의 든든한 후원자 유해연 시티헨즈컴퍼니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은 이번 청소년해외자원봉사활동의 사전모임부터 현지 봉사활동까지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후원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봉사단을 비취주는 등불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DREAM-TEENS에 함께하게 된 계기에 대해 “청소년들과 함께 맘 흘려 봉사하면서 때론 지루한 캄보디아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제게 깊은 감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히시며 봉사활동 기간 내내 DREAM-TEENS의 걸을 지켜주셨습니다.



김종석 그림책작가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이 담긴, 개성적인 화법으로 공간을 재창조하는 김종석 그림책작가님도 DREAM-TEENS를 지지해주시는 또 한 분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봉사단원들이 홀트드림센터 내부에서 활동하는 동안 작가님은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홀트드림센터의 외관 벽화 밑그림 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봉사단원들과 센터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밖으로 나가 작가님의 밑그림 위에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 색칠을 했습니다. 덕분에 홀트드림센터가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그림책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We are light of future” - 봉사단원들의 활동 소감

봉사 열정이 가득했던 현지 봉사활동을 마치고, 여름이 찾아올 무렵 DREAM-TEENS 봉사단원들이 각자의 뜻깊은 활동 소감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홀트아동복지회 Dream-teens로 통해 친선 기부행사를 다녀온 ○○입니다.
수선 어린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부담과 강한 편이 제 내면에 있는 것 처럼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함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내면 환경에만 치중했던 활동은 감사합니다.
스마트 폰과 카메라와 함께 다니는 편리해서 서로 양쪽에 피렌트-공유했고 제 특별한 기억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은 잊었지만 이런 기쁨은 잊을 수 없는 기쁨을 남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로 봉사활동을 할 때의 기억으로 남겨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로 봉사활동을 할 때의 기억으로 남겨 주신 것 같습니다.

▲ 오서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가슴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봉사단원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머릿속에 선하고 특히 눈 볼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모습과 안이주던 한 아이한테 너무 고맙고 볼 땐 때 아쉬워 하는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 보냅니다. 생각보다 짧게 느껴져 아이들과 더 친해지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아이들 모두 볼은 모듬으로 잘 따라주어서 나 또한 웃음 잃지 않고 봉사활동 진행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봉사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나였고 봉사의 필요성도 별로

▲ 원오

글 한부모지원센터 조성민

엄마들의 반가운 변화를 알리는 소리, 'H!-Change'

H!-Change 개강식과 알찬 내용으로 가득한 클래스 스토리



새 학기의 시작인 3월,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H!-Change 개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H!-Change 사업은 한부모에게 베이킹·수공예·가족공예 분야의 교육훈련, 수익창출, 작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의 역량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4월부터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엄마들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H!-Change 반가운 개강식

자립의 시작을 알리는 개강식 자리에는 클래스 강사들과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후원사인 현대홈쇼핑과 협력사인 우녹스코리아도 함께하여 한부모들은 모두의 응원과 축하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지난 학기 교육 영상 시청, 선배 후기, 2024 교육과정 소개를 통해 H!-Change 사업을 알아가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소 7회기부터 최대 17회기까지, 4개월가량의 전문교육을 통해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꿈꾸고 나아가는 엄마들의 이야기

4월 개강을 시작으로 베이킹·수공예·가족공예 분야별 맞춤형 클래스는 벌써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공예 천연비누/아로마 클래스는 각 9회기/7회기로 모든 회차가 종료되었고, 베이킹·가족공예 클래스는 마스터반, 고급반으로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실력에 강사

도, 수강생도 더욱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연비누와 아로마 클래스 수강생 전원은 6월에 있는 2급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였고, 7명이 자격 취득에 합격하여 1급 취득을 위한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족공예 작업



▲ 베이킹 스콘 만들기



▲ 천연비누 만들기

전문가로서의 첫 시작, 자격증 취득 도전

분야별 클래스 이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전문교육기관 심화 강의 이수를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과기능사, 천연비누/아로마 일반강사, 가족공예지도사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추후 강사 활동과 취·창업 활동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한부모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모든 한부모가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H!-Change 그 이름처럼 반가운 변화를 시작한 한부모들을 향해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수강생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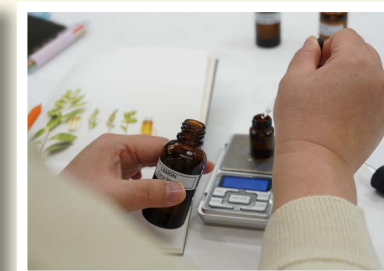
"소수 인원이라 1:1 수업처럼 각 사람에게 아주 자세히 알려주신 점이 좋았어요. 자격증 취득 후 활동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려주시고, 사업 담당 선생님께서 수강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클래스였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전반적인 지식의 폭이 넓어졌고 현재 하는 일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 나아가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할지 계획할 수 있게 되어 보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찬 내용들로 가득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 아로마 이론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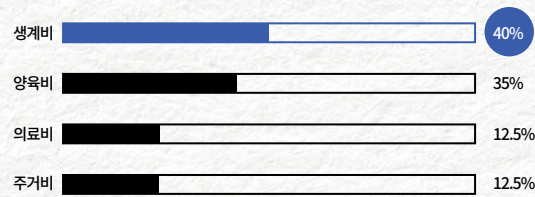
▲ 아로마 블렌딩 작업

긴급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2024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전국 지원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임신 중인 미혼모 또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가정의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현황을 보면 생계비, 양육비, 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생활 회복을 도왔습니다.



2024 상반기 지원현황

본 사업을 지원받았던 엄마들의 긴급했던 이야기와 훈훈한 감사 후기를 공개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뻔했던 순간

저는 생애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임신 3개월이라는 소식과 '거대자궁근종'이라는 얘기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직으로 일하며 교체하던 남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했지만,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경제적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남자친구와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당장 경제적인 소득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부모님은 중절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고민 끝에 중절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뱃속 아이의 심장소리가 유독 집안 가득 울려 퍼져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고, '내가 잘한 선택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던 중 홀트아동복지회의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고 얼마 안 되어 연락을 주셨는데 제 건강에 대해 물으시고 아이의 미래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상담과 지원이 아니었다면 제 뱃속의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상담 후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덕분에 입덧이 심했던 저는 영양가 있는 식료품으로 뱃속 아이의 건강을 챙길 수 있었고, 지원받은 산전 진료비를 통해 아이의 건강을 확인하며 안정적인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궁근종으로 제왕절개 수술비 마련이 시급했는데 이번 지원으로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중절수술을 권유했던 부모님도 지금은 아이를 너무 예뻐하시며 매일 안부를 물어보십니다. 앞으로 직장을 구해 더 열심히 살면서 아이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양육 기반을 마련해준 고마운 손길

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지도원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1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중반의 여성이 배가 불룩한 채 저희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이 여성(이하 친모)은 택배물류센터에 다니며 조그만 단칸방에서 지내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았던 모습에 호감을 느껴 교체하다가 겨울 무렵 임신 초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모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남자친구는 중절수술을 권유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미납으로 난방과 전기가 끊겼고, 친모는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결국 영양부족과 빈혈 상태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시설에 입소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이 조금씩 회복될 때쯤 친모는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집의 월세와 관리비 등의 연체료를 정리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친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전혀 없어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마침 홀트아동복지회의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하여 친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친모는 이제 밀린 월세도 없고, 연체된 관리비도 없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아동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가장 안정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셔서 친모가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지금 도움 주신 것을 바탕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겠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위기상황에 놓인 출산을 앞둔 미혼모,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가정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연중 수시로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는 보호받아야 하며 태어난 아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위기상황에 처한 엄마와 아기의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박혜정

행복한 웃음과 풍성한 나눔이 가득했던 홀트학교 봄운동회

‘오빠네옛날떡볶이’와 함께하는 ‘2024 홀트학교 봄운동회’ 현장으로 Let's Go~

5월 14일, 2024 홀트학교 봄운동회가 ‘오빠네옛날떡볶이’와 함께 ‘먹Go! 달리Go! 즐기Go!’라는 슬로건 아래 홀트학교 176명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운동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랜만에 신나는 즐길거리와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화창한 봄날을 만끽했습니다



홀트학교 세로토닌 드럼클럽의 연주에 이어 전교생의 운동장 입장으로 시작된 운동회는 장애물 달리기·회전바구니·풍선 터뜨리기·사다리 타기·코끼리 걸기(휠체어 경기)·판 뒤집기(학부모 경기) 등을 비롯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청·홍 대줄다리기까지 16가지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각 학년별로 경기에 참여하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은 열정을 다해 운동회를 즐겼습니다. 이날 운동회는 오빠네옛날떡볶이, 주님의 교회, (주)청원양행, 맞찬들, 72라이더, 사회적협동조합 '바른', 육군9사단 '황금박쥐여단' 장병들의 후원 및 자원봉사로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놀이마당이 되었습니다.



▲ 전교생과 학부모가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장애물 달리기부터 줄다리기까지 다양한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

운동회에는 김봉환 홀트학교장을 비롯해 백동민 오빠네옛날떡볶이 대표, 이영아 학교운영위원장, 김은수 학부모회장,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시설 기관장들, 후원자, 지역 시·도의원, 탄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위원회장,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운동회에 임하는 홀트학교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운동장 바깥쪽 그늘에서는 봉사자들이 직접 와플을 만들어 나누고, 식당에서는 ‘오빠네옛날떡볶이’ 봉사팀이 맛있는 떡볶이와 어묵 및 순대를 제공해 모든 이들의 점심을 책임져주었습니다. 운동회가 진행되는 동안 교정 곳곳에 숨겨진 ‘보물찾기’의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저마다 푸짐한 선물(72라이더 후원)을 받아두고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2019년, 2022년 운동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참여한다는 이의현(고등 3학년) 학생은 “올해는 날씨도 좋고 맛있는 간식과 봉사활동으로 도움 주시는 분들 덕분에 더욱 재미있는 운동회가 되었어요”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오늘 하루, 홀트학교 가족들은 색색의 만국기가 휘날리는 운동장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신나고 행복한 운동회를 즐겼습니다.



▲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수고하시는 분들께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



백동민

(오빠네옛날떡볶이 대표)

Q. 어떤 계기로 홀트학교 운동회를 후원하게 되셨나요?

2013년부터 홀트일산복지타운, 홀트일산요양원, 주님의 교회 등 홀트 가족을 위해 매달 맛있는 떡볶이를 대접하는 것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교육비를 후원하다가 학교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72라이더' 동호회 회원들의 제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목적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홀트학교 운동회에 후원자로 참여하며 매년 정기 후원과 함께 운동회 경품 후원, 그리고 점심식사를 직접 만들어주며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Q.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해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장애인분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홀트학교 운동회 덕분에 보람되고 알찬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힘내시고, 홀트학교 학생 여러분도 꿈을 활짝 펼칠 길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즐길 수 있도록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학부모님들도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가장 좋은 날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백동민 '오빠네옛날떡볶이' 대표님과 진행업체 대표님도 그 점에 공감하시고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셨습니다. 홀트학교의 운동회는 장애학생들이 많은 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경험해봄으로써 훗날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정연재(홀트학교 체육부장)

경기의 규칙과 절차 배우며 성취감 얻는 기회



아이들은 운동회에 참석할 때마다 경기의 규칙과 절차, 자기 차례까지 기다리는 과정 등을 배우면서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록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운동회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가 점점 축소되거나 줄어들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홀트학교 선생님들은 감사하게도 아이들에게 즐거운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교육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함께 즐기는 운동회가 되어 너무 기쁩니다.

- 김은수(학부모회장, 고등 3 이의현 학생 어머니)

학부모들의 만족도 높아 우리 반 참석률은 100%



올해 두 번째 참여하는데요, 처음 운동회에 참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규모로 치러지는 행사인 줄 몰랐거든요. 학교와 후원자분들의 진심어린 도움과 관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모두 만족하셔서 우리 반은 참석률이 100%예요. 잔디운동장에다 풍성한 간식과 국군 장병들의 일대일 봉사까지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지니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지요. 이렇게 모두가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학교에 정말 감사드려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잘 적응하고 변화하는 걸 보면서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져요.

- 김석영(5학년 학부모대표, 초등 5 박철민 학생 어머니)

글 홍보팀 정진숙 사진 홀트학교 교무부장 허남석

“홀트학교는 제2의 집, 제자들은 저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제13회 '대한민국 스승상 녹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홀트학교 방지혜 선생님



▲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들의 단체사진에서 아랫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방지혜 선생님

5월 20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개최한 제13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에서 홀트학교의 방지혜 선생님이 '대한민국 스승상 녹조 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교육상입니다.

방지혜 선생님은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재 개발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헌신한 방지혜 선생님의 공로를 기리고 귀감으로 삼고자 방지혜 선생님과 그의 일문일답을 전해드립니다.



▲ 교육활동 자료 '언어전달장'을 들고 있는 홀트학교 방지혜 선생님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Q.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홀트학교는 저에게 제2의 집이고, 제자들은 저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분들의 지지와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선물을 받게 해준 사랑스러운 우리 홀트학교 학생들과 동료 교직원분들, 학부모님들, 홀트아동복지회와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Q.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변함없는 사랑과 꾸준함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저의 교육관이자 신념입니다. 늘 아이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였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두 팔 벌려 안아주고 반갑게 인사하며 아이들에게 진정 어린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지혜 달력 읽기', '아침 발표하기', '언어전달장 수행하기', '웃는 활동하기', '긍정언어 사용하기', '사랑 표현하기'를 비롯한 13가지 특색 있는 학급 교육활동을 접목시켜 아이들의 잠재력과 사회적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즐거운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교육활동의 중점을 두었고, 아이들은 저의 희망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신나게 활동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학년말에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 자신도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듯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활동은 사랑과 기본교육의 충실, 독창적인 교육활동, 끊임없는 연구 등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오랜 세월 장애학생들과 함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특수학교가 개성이 다른 아이들의 공동체이다 보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예상치 못한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어려움, 놀람, 도전의 연속이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모든 어려움이 보람과 가슴 벅찬 감사로 바뀌곤 했습니다. 뇌병변과 시각장애로 다른 사람과는 절대 교류하지 못했던 한 여학생이 재밌는 찬양, 즐거운 언어와 동작으로 제가 다가가지 못한 웃음과 함께 온몸으로 저와 소통할 수 있게 된 일, 편식이 심하여 4학년이 될 때까지 밥 한 톨도 먹지 않던 아이가 생활교육을 통해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된 일, 고액 과외를 받아도 6학년이 되도록 글자를 모르던 아이가 우리 반에서 한 달 만에 한글을



▲ 하루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는 방지혜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

터득하게 된 일 등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했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으로 예상치 못한 사랑의 표현을 전해주는 아이들, 졸업 후에도 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고마워하는 제자들, “저를 만난 것은 천년, 만년에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라고 말씀해주신 학부모님들...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의 극찬과 축하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Q.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격려와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집과 가족'은 우리에게 큰 안식을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은 집과 가족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양육하며 즐거움과 행복도 느끼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힘듦을 교사와 함께 의논하면 그 무게가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교사를 온전히 신뢰하고 엄마의 자리를 교사에게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홀트학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므로 홀트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홀트가족이 서로 의지하며 작은 홀트 천국을 계속 누리길 기도합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 김은영



문화예술로 연결되는 모두의 세상을 꿈꾸며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 세미나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황과 미래'

4월 26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로 연결되는 모두의 세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발표와 공연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황과 미래를 조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동석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교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체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방귀희 위원장은 장애인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동석 교수



▲ 방귀희 위원장

장애인 문화예술의 성공 스토리, 자아실현과 사회소통

발달장애 예술가 에이전시 '디스에이블드' 김현일 대표는 다양한 장애예술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가지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일 대표는 성공 사례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성은 과장은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 김현일 대표

장애예술인의 연주와 '나'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첼리스트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인 배범준 씨가 자신의 연주와 함께 장애예술인으로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범준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 예술이 가지는 힘과 감동을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성공사례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끊임없는 피드백과 장애예술인들의 명성을 알리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 최성은 과장



▲ 배범준 첼리스트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성인발달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아르떼 아카데미'



▲ 양현집 그림작가

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트복지기획팀 박수진

요리할 줄 아는 남자, 이젠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독거남성 지원사업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오빠의 앞치마'**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행복주방'** 돌아보기

현대사회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갈수록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혼자 살아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자유롭고 편하기보다 두렵고 쓸쓸한 고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식 조리방법을 모르거나 식재료 구매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중장년 독거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홀트아동복지회 산하시설인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오빠의 앞치마'를,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행복주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홀로서기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멋진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오빠의 앞치마'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은 만 40~65세 이상의 중장년·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요리방법을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중장년 독거남성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식생활 자립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오빠의 앞치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기를 맞이한 **오빠의 앞치마**는 요리강사 초빙을 통한 요리활동, 참여자들 간 친목 형성을 위한 집단활동, 주변 이웃 중 혼자 사는 독거세대를 대상으로 한 요리 나눔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여자들의 식생활 자립을 위한 요리활동 모습



▲ 요리활동 전 논의 중인 참여자들



▲ 요리활동에 열중하는 모습

“서툴지만 그래도 괜찮아”

옛말에 '남자가 부엌에 자주 드나들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명절날을 떠올려봐도 여자들은 부엌에, 남자들은 거실에 있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지요. 실제로 **오빠의 앞치마** 참여자 중 대부분은 “남자라서 요리할 줄 몰라요”, “결혼한 뒤로는 부인이 다 요리를 해줬지, 저는 해보지 못했어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세월이 변하며 옛말은 과거의 유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반찬으로 밥 한번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중년의 '오빠들'은 이제 과거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반찬을 만들 수 있을 그날까지

오빠의 앞치마의 한 참여자는 요즘 복지관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요리를 배울 수 있고 동년배들을 만날 수 있어 참 좋아요.” 또 다른 참여자는 누군가가 해준 반찬 말고 잘하지는 못해도 자신을 위해 조금씩 칼질도 해보고 양념도 버무려보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거 한번 맛보실래요?”라며 반찬을 권하는 참여자들을 보면 서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게 느껴집니다.

오빠의 앞치마 프로그램은 매주 새로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도 다함께 나들이하며 이전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지 말고, 매번 그 나물에 그 반찬만 사먹지 말고, '오빠들이 내 손으로 직접 반찬을 만들 수 있을 그날까지' **오빠의 앞치마** 참여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오빠들**의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 친목 형성을 위한 나들이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행복주방'

맛있는 요리로 모두가 행복하게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의 '행복주방'은 요리가 낯설고 힘들어 끼니 해결이 어려운 1인가구 중장년 남성에게 요리 교육, 요리 나눔, 친목 도모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나아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행복주방은 매월 2~3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는 강사님과 함께 요리를 배우는 시간, 셋째 주는 지난번 요리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매달 마지막 주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주민에게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만든 요리를 나누는 지역 나눔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행복주방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모습

나누며 행복해지는 '행복주방'

3월에는 동태탕, 4월에는 춘천닭갈비, 5월에는 짜장면과 무장아찌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4월 마지막 주에는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섯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춘천닭갈비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지역 나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진지하게 나눔할 요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라 조심스럽게 간도 봤습니다. 조리한 음식을 포장하며 싱거울 수 있으니 각 가정에서 원하는 대로 간을 추가해서 먹으라는 안내문도 준비했습니다. 성장기인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푸짐하게 포장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 요리강습에 열중하는 참여자들



▲ 요리의 시작은 재료손질부터 재료 다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

소통하며 행복해지는 '행복주방'

지난 4월, 행복주방 참여자들과 기장군 니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점심식사 후 가구와 생활소품을 판매하는 대형 매장을 방문해 곳곳을 둘러보며 각자 꼭 필요한 소품들을 구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매장에 와보지 않은 참여자가 대부분 이어서 아이디어 상품들을 보고 신기해하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카페에서 친목 도모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집에서도 강의 시간에 받은 레시피대로 따라해보는데 그 맛이 나지 않던데요. 다들 한 번 더 집에서 해보셨나요?” “맛있게 만들려면 많이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의견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비가 와서 외부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 아쉬웠지만, 참여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는 행복주방 참여자들. 매월 '행복주방'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은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 주방이 될까' 기대한다고 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행복주방 참여자들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요리와 활동으로 더욱 행복한 주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윤봉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화희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복지팀 최지영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힐링캠프 '느영나영 곱들락 제주'

춘천시가족센터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한부모가족 여행기

춘천시가족센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및 마음치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고등 및 청소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및 문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 '느영나영, 곱들락 제주'를 진행했습니다.

'느영나영'은 '너랑나랑', '곱들락'은 '아주 매끈하고 곱다'는 뜻의 제주어로

'느영나영 곱들락 제주'는 '너랑 나랑 아름다운 제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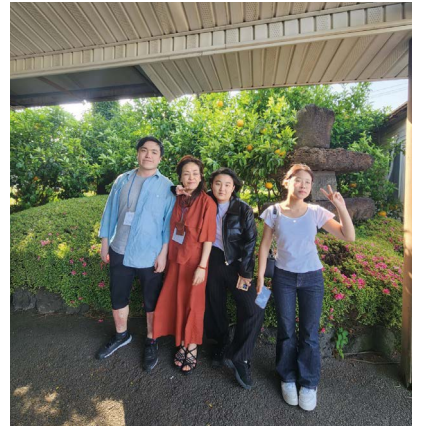


'제주도 힐링캠프'를 떠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교육 및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1차는 다문화가족 레크레이션(4월 19일)을, 제2차는 MBTI를 통한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교육(4월 26일)을 수강하고, 지난 5월 25~27일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다함께 제주도 힐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알찬 교육과 함께 이번 사업의 하이라이트 제주도 힐링캠프 '느영나영 곱들락 제주'의 여정을 만나볼까요?

서로 이해하고 소중한 추억 쌓는 기회

두 차례 교육 중 MBTI를 통한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교육에서는 나와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어느 유형의 MBTI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유형별 특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는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난타·태권도·부채춤의 결합 공연인 '아리랑 혼'을 관람하고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제주국립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또한 제주의 푸른 자연을 눈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에코랜드를 방문해 가족간에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참가자 후기



♥ 아이와 아빠, 둘만의 첫 여행

영수(가명) 씨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한부모 아버지인데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니 아이와 둘만의 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첫 제주도 여행이라는 설렘과 함께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해주었어요.

♥ 비가 와서 더 특별했던 승마체험

우진(가명)이는 남자 고등학생으로 뮤지컬과 연극 등에 관심이 많은 아이예요. 우진이에게는 이번 여행이 대한민국에서 자라면서 엄마와 둘이 떠나는 첫 국내 여행이라고 해요. 제주도의 넓고 푸르른 자연과 더불어 비가 와서 더 특별했던 승마체험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후기를 전해주었어요.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 엄마와 재미있는 추억을 쌓아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춘천시가족센터는 2006년 결혼 이민자센터로 지정되어 처음 문을 연 후 2022년 가족센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문화가족의 지역 정착과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시가족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여행 못한 아쉬움 단번에 해소

중학생 남매를 키우는 타냐(가명) 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느라 늘 바쁜 데다 여행비용도 부담스러워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갈 엄두를 못 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아쉬움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남겨주었어요.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엄마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기회가 된다면 '엄마나라 역사 배우기' '엄마나라 음식 만들기' 같은 '엄마나라 기행'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안해주었어요.

전 세계 아동들에게 행운을 선물하는 지름길, '행선지'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사업장을 통해 긴급지원 받은 아이들 이야기

여행의 행선지, 열차의 행선지 등 '떠나가는 목적지'를 행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선지는 어디인가요?
 행복, 건강, 성취 등 다양한 인생의 행선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행선지를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행운을 선물하는 지름길'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그 아이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행운과도 같은 시간일 테니까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캄보디아·탄자니아·몽골·네팔 4개국의 해외사업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며 가난과 불평등에 처한 가정과 아동에게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와 교육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행운을 선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함께 가볼까요?



Vin

선생님이 될 거예요!

9살 소년 빈(Vin)은 부모님의 이혼 후 장애가 있는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빈의 가족들은 생필품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정 형편에서 빈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용품 준비하기란 더욱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빈은 학교가 끝나면 홀트 해외사업장에 와서 간단히 식사도 하고, 학용품도 받고, 선생님들로부터 캄보디아어, 영어, 수학 등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홀트 해외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빈은 꿈이 무엇인지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행복해질 수 있겠죠?

11살 소년 압둘라작(Abdulazak)의 아버지는 천식을 앓고 있고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아버지가 미용일을 하며 벌어오는 하루 평균 천원 남짓의 수입이 이 가족의 생활비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일상이고 때로는 방세를 지불하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압둘라작은 주변 이웃들이 본인과 가족들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까지 한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용품조차도 압둘라작에게는 욕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압둘라작과 그 가족에게 홀트 해외사업장에서는 쌀과 콩, 옥수수 등 식료품과 압둘라작의 학교 교복 및 가방과 학용품, 그리고 압둘라작의 건강보험 비용도 지원해주었습니다.



Abdulazak



Rebeca

이제는 배고프지 않아요.

10살 소녀 레베카(Rebeca)는 2019년 어머니를 땡기열과 고혈압으로 잃고, 같은 해에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된 레베카와 동생은 조부모님 손에 자라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은 아직 어린 레베카의 이모들 3명과 레베카, 레베카의 동생까지 모두 5명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바나나를 팔고 할아버지가 일을 해서 벌어오는 하루 평균 5천원 남짓의 수입으로 7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레베카는 아침도 굶고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베카와 가족들은 홀트 해외사업장에서 지원받은 식료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레베카는 지원받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빈, 압둘라작, 레베카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사업장을 통해 지원받고 있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행운을 선물할 수 있도록 '행선지'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글 국제개발협력팀 서혜림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위기상황에 놓인 엄마와 아기를 함께 지켜주세요!

아기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280일.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홀로 버텨내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엄마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엄마와 아기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 나눔마케팅본부를 비롯해 부산, 대구, 충청, 인천지부에서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부산지부:4월 28일, 현대자동차 노사의 후원으로 울산광역시 큐빅광장에서 미혼한부모가정 인식개선을 위한 플라마켓 'MOM's FESTA'를 개최하고 캠페인 홍보 및 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부모 셀러가 참여한 플라마켓과 한부모가정을 응원하는 메시지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부산지부 행사

충청지부:5월 4일,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 주최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102주년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캠페인을 소개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참여한 가족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고, 나눔문화 확산에도 동참했습니다.



▲ 충청지부 행사

대구지부:5월 5일, 경북 포항시가 주관한 '2024 포항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참여하여 캠페인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미혼한부모에게 응원 메시지 쓰기 및 양육 키트(280일 상자) 안에 신생아에게 필요한 양육용품 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대구지부 행사

나눔마케팅본부:5월 5일~6일,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탁보니와 함께하는 버스킹280' 행사를 개최하고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며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돕는 캠페인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 탁보니와 함께하는 버스킹280

인천지부:5월 10일, 제19회 입양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도울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2,800원 소액기부로도 참여 가능

캠페인 행사를 통해 나눔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사랑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캠페인은 위기임산부가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양육용품 등을 지원하며, 2,800원 소액기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엄마와 아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클 나눔기획팀 김지민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은 2,800원 일시후원으로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는 소액기부 캠페인입니다.

소액기부 참여하기



자립준비청년의 삶 가운데 빛을 선물한 '주님의 교회'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지원군 주님의 교회 후원 이야기



자립준비청년은 만 18~24세가 되면 보육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6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댈 어른 없이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현실이라는 벽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기만 한 자립준비청년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전부터 각 단계별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님의 교회 현판



▲ 주님의 교회 예배 장면



▲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홀트일산타운 청소봉사



▲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장애인 나들이 동행봉사

예수부활의 기쁨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고자



홀트아동복지회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담임목사 신종철)'입니다. 주님의 교회 교역자님과 성도님들은 지난해 추수감사주일 특별 헌금 후원에 이어, 올해에도 예수부활의 기쁨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고자 귀한 나눔을 결단 해주셨습니다.

특히, 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자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모은 부활주일 특별헌금 1억 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한편, 주님의 교회는 홀트일산타운의 중증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봉사와 나눔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용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용인들의 생활공간 구석구석을 직접 청소하고 살피며, 외출 동반봉사와 배식봉사, 필요 물품 지원 등으로 진정한 이웃 섬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빛을 밝히는 귀한 사역

주님의 교회에서 전달해주신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교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 나눔기획팀 박효진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시설을 퇴소하여 건강한 자립을 이룰 때까지 함께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기댈 어른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혼자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세요.



▲ 자립준비청년 후원하기

아이와 함께 달리며, 행복한 나눔을 배워요!

선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유아차 기부런' 현장 스케치

아이와 함께 야외활동을 하기에 더없이 쾌청한 날이었던 지난 6월 8일, 선 홍보대사님과 안정은 러닝전도사님의 주최로 '유아차 기부런'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달리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엄마, 아빠들이 모였는데,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아이와 함께 달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도 돕는 '유아차 기부런'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아이와 즐거운 추억 쌓고 나눔도 실천하고

보호자와 유아차에 탄 아이가 한 팀을 이뤄 총 52팀이 참가한 이번 유아차 기부런에서 엄마와 아빠들은 세빛섬 앞 광장(서울시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서 출발해 반포 한강공원 일대(5km)를 달리며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쌓고, 나눔도 실천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부런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 340만원이며, 전액이 홀트아동복지회로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후원금은 위기에 처한 미혼모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아차 기부런에 선한 뜻으로 참가해주신 모든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에게도 '나눔'이 즐거운 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낀 행복이 전해지길

오늘 이렇게 많은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날씨 속에서 함께 운동하고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단지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 행복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혼모분들에게 이 작은 행복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선 홍보대사

에너지 넘치는 엄마, 아빠들과 함께

오늘 제2회 유아차 기부런이 진행됐는데요. 비 소식이 있었지만 날씨가 좋아져서 매우 즐겁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달리기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 우리 아이들도 더욱 신나게 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파이팅!



-안정은 러닝전도사

유아차 기부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지길

와이프가 거의 만삭이라 뛰지는 못했지만 함께 참여하는 마음만으로도 의미 있었습니다.(강재준)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지는데, 여러분과 함께 뛰니까 기분도 너무 상쾌하고, '강종이(태명)'도 기분이 좋은지 태동도 활발합니다. 유아차 기부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져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이은형)



-개그맨 강재준-이은형 부부

아이들에게 기부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액 기부를 해왔었는데, 아이에게 다같이 협력하고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동안 아이들이 칭얼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맑은 날씨와 선선한 바람이 좋은지 아이들도 덩달아 '엄마 아빠 화이팅!' 하며 응원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로아·로아 아빠

건강한 자극을 받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하루

유아차에 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동안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온 제가 건강한 자극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다온·다을 아빠



'유아차 기부런'의 자세한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연아동의 성장 모습은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국내결연아동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효빈 후원자의 나눔 이야기



홀트아동복지회의 ‘향기 나는 결연, 허브’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비,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지속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자님과 아동을 매칭하는 결연 후원입니다. 2019년부터 향기나는 결연, 허브와 함께 결연후원, 물품후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 중인 이효빈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로 만든 온라인 쇼핑몰 포장 패키지를 들고 있는 이효빈 후원자

사회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회사 노른자^{ONLINE} Mart

이효빈 후원자는 과자, 간식을 포함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노른자마트’를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부터는 자체 캐릭터인 쿠키버니, 초코베어를 제작하여 캐릭터를 활용한 과자, 간식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빈 후원자는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사회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회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홀트아동복지회가 오래전부터 국내아동을 돕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내 아동후원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홀트아동복지회라면 믿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후원을 결심하고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효빈 후원자는 감사하게도 5년째 결연후원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결연후원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는 질문에 이효빈 후원자님은 “결연아동의 성장보고서를 받아보고 나의 작은 후원이 한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전달받는 결연아동 성장보고서와 홀트아동복지회의 다양한 소식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이효빈 후원자는 자신이 ‘결연후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연후원의 특별함은 후원과 나눔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켜봐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결연아동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후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저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되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효빈 후원자는 결연아동의 생일 때마다 선물과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셨는데, 생일 후원에 참여할 때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연아동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다가 생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생일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기에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영(가명)이가 태어난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많이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선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올해 생일을 맞아 후원자님이 보내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찬영이

후원자님이 궁금해요! 결연아동 찬영이의 질문

Q. 후원자님의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안녕 찬영아! 나의 어릴 적 꿈은 인테리어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어.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느낌의 예쁜 집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꿨던 것 같아!

Q. 저의 후원자가 되신 후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내가 누군가의 후원자가 된다는 것이 감동적이고 뿌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 이전까지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찬영이와 소중한 인연이 된 것에 감사하고,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찬영이를 응원해!

후원자님의 격려 메시지

“찬영아! 공부 열심히 하고, 찬영이가 좋아하는 미술과 태권도도 지금처럼 즐겁게 배워서 몸과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게. 앞으로 찬영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지 기대된다. 나는 찬영이가 어른이 되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주길 기대할게. 그리고 찬영이를 믿고 응원하는 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게 지내! 사랑해 찬영아!♥”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는 목표를 전해주시는 이효빈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후원자님과 함께 결연아동에게 행복을 전하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되겠습니다.

글 나눔지원팀 김호인

함께하여 더욱 빛나는 '해성사랑' 탐리더스 팬덤기부

가수 진해성 팬클럽 '해성사랑' 탐리더스 위촉과 한부모 응원 원데이 클래스 참여 이야기



가수 진해성 응원이 선한 영향력 되길

5월 30일, 가수 진해성 공식 팬클럽 '해성사랑'의 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 탐리더스(Top-leaders)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해성사랑은 2022년부터 네이버 기부플랫폼 '해피빈' 모금함 공기부를 시작으로, 누적 후원금 1,150여만 원을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돕는 일에 전했습니다. 또한 가수 진해성의 34번째 생일인 6월 4일 '해피 해성데이'를 기념하여 604만원을 기부하는 것 외에도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정기후원에 참여하여 위기임산부와 영아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 중인 이정미 강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

위촉식에 참석한 18명의 해성사랑 팬클럽 회원들은 가수 진해성의 상징 컬러인 코발트블루 색상의 드레스코드와 스타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 머리띠 등의 응원도구를 준비해 탐리더스 위촉을 축하하고 위기가정 아동을 응원하였습니다. 위촉식 이후 해성사랑 팬클럽 회원들은 한부모강사가 진행하는 수공예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 스타의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강사님은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사업 대상자이자 셸리슈 공방 대표로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미 강사님입니다. 이날 제작한 굿즈는 가수 진해성 사진을 담은 '포토 석고방향제'와 코발트블루 스카프를 목에 두른 '베어브릭 석고방향제' 2가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 굿즈를 제작하고 있는 '해성사랑' 탐리더스 위원들



해성사랑이 탐리더스 위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받게 되어 진해성의 팬으로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일회성 후원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진해성의 생일을 맞아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기부활동을 함께한 우리 해성사랑 팬들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값진 팬덤 후원

해성사랑 탐리더스 위촉식에서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해성사랑이라는 팬들 덕분에 진해성이라는 가수가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팬덤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신 해성사랑 팬클럽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탐리더스 위촉식과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한 회원 모두 한목소리로 명예로운 탐리더스 위촉뿐만 아니라 진해성을 향한 애정 담긴 굿즈까지 제작하게 되어, 진해성의 팬으로서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멋진 스타에겐 멋진 팬들이 있음을 보여준 탐리더스 해성사랑의 아름다운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글 나눔지원팀 구민지

본부



IBK기업은행 서교동지점, 홀트패밀리# 후원 협약

4월 11일, IBK기업은행 서교동지점과 위기가정아동 지원을 위한 홀트패밀리#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 서교동지점은 생계주거의료정서 영역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아동에게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홀트패밀리# 가입을 통해 위기가정아동에게 따뜻한 지원을 실천해주신 IBK기업은행 서교동지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홀트 전국후원회 이사회 개최

4월 17일, 홀트 전국후원회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홀트 전국후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고, 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사회 개최 다음날인 4월 18일에는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한마음으로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2024년 전국후원회 후원금은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 지원과 위기미혼모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부



'찐파워' 김진영 후원자 자립준비청년 후원

6월 21일, 유튜브 채널 '찐파워(zzinpower)'를 운영 중인 도전 크리에이터 김진영 후원자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사하라 사막 마라톤 완주 펀딩금 300만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했습니다. 김진영 후원자는 4월 14~20일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252km 완주에 성공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청년들의 도전과 꿈을 적극 응원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산지부



현대자동차 노사와 함께하는 MOM's FESTA 실시

4월 28일, 울산 큐빅광장에서 현대자동차 노사와 함께하는 MOM's FESTA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혼한부모가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혼한부모 응원 메시지 작성하기를 시작으로 플라마켓, 킴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미혼한부모가정 지킴이키트 지원을 위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후원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함께해준 현대자동차 노사에 감사드립니다.



KB손해보험, 365베이비케어키트·키즈키트 후원금 전달

5월 7일,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분욱)과 미혼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양육을 돕는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택 홍보대사, 한부모들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미혼한부모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키트를 포장했습니다. 꾸준한 후원으로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립니다.



하이투자증권,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후원금 전달

5월 21일, 하이투자증권(사장 성우용)과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와 태어난 아기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의료비, 생계 및 주거비, 출산 및 양육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엄마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와 함께하는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5월 5일, 포항시에서 주관한 제102주년 어린이날 기념행사 '2024 포항 어린이날 큰 잔치'에 참여해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올해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에서 열렸으며 이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은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체험부스 참여뿐 아니라 홀로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미혼엄마에게 응원 메시지도 작성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행복한 우리가족 나들이' 개최

5월 11일, 가정의 달을 맞아 대전광역시 주최로 '참 행복한 우리가족 나들이'를 실시했습니다. 대전오월드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대전 및 충남북 지역 250여 명의 가족들이 참여해, 버블쇼, 다해패밀리코스 합창 공연, 부스체험(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물원 관람 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에게 기념품 등을 후원해주신 홀트대전후원회, 굆네치킨, 와프랩에 감사드립니다.

홀트일산요양원



(주)청원양행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월 14일 (주)청원양행(대표 김영선)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외 의약품 유통기업인 (주)청원양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게 됩니다. 협약식에서 김영선 (주)청원양행 대표는 “장애인들의 전 생애를 함께하는 홀트일산요양원과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꾸준히 응원하고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홀트 어르신 노래자랑’ 실시

5월 3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참석한 모든 어르신에게 케네이션과 기념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일마다 소외감을 느낄 어르신들을 위해 이날만큼은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동연 작가, ‘제4회 스타벅스 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

6월 19일, ‘제4회 스타벅스 그림 공모전’에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김동연 작가가 ‘차별 없는 세상-친구와 함께하는 연주회’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림을 그렸고 이번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수상 소감을 전달한 김동연 작가의 작품은 선명한 색채와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맞아 식사와 기념품 전달 및 공연 개최

5월 8일, 지역 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 426명에게 무료 점심식사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라인댄스 수강생들의 특별 기념무대와 노래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부산다문화가족협회에서 식사 제공과 새마을부녀회 배식봉사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아침뜰



한부모가족의날, ‘마음충전’ 힐링 나들이 실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아이를 지키고 육아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 엄마들을 격려하기 위해 힐링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액션 영화를 보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한적한 강가에 앉아 서로를 응원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마음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구클로버



육아와 학업에 성공, 자립 축하 송별회 진행

5월 23일, 그동안 한가죽처럼 지낸 문*희 씨의 4년 6개월 시설 생활을 마무리하는 송별회를 진행했습니다. 문씨는 대구클로버에 입소하여 고교를 졸업한 뒤 창업을 목표로 피부미용학과에 진학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현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습득을 위해 대학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대구클로버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며 자립을 위해 달려온 문씨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름뜰



가정의 달 맞아 한강공원 나들이 실시

5월 9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화창한 날씨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강의 정취와 풍경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들은 여유 있는 티타임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아이들은 활트인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클로버



입소자와 퇴소자 다함께 참여하는 자조모임 실시

6월 1일, 입소자와 퇴소자가 다함께 참여하는 ‘서로를리다’ 자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조모임에서는 대전대흥침례교회의 후원으로 아이들은 키링과 케이크 만들기, 미니올림픽 등의 체험활동을, 엄마들은 천연화장품 만들기를 진행하며 서로의 근황을 묻고 조언과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며 가장의 책임감에 힘들어하던 한부모들은 이 모임을 통해 잠시나마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는 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정과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해외후원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해외 빈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4개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결연후원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국내·외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고액후원

다양한 기부활동과 봉사로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가 되어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합니다.

기업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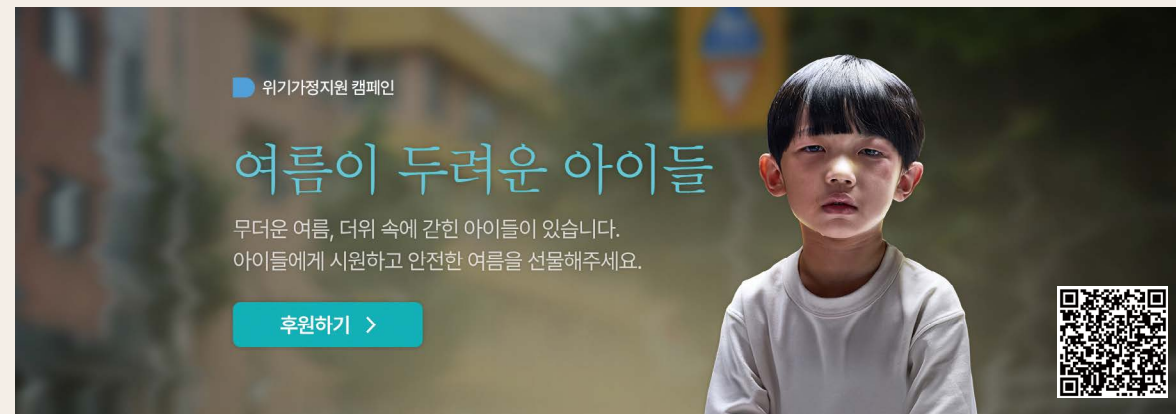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협력사업(수익기부, 지원사업 공동기획, 임직원·고객 참여 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합니다.

교회후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갑니다.

특별한 후원

생일, 첫돌, 결혼, 취업, 출산, 팬덤 등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일 캠페인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후원합니다.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아기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280일.**

누군가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버텨내는 시간.

가난과 편견으로 위험에 노출된 **엄마와 아기를 지켜주세요.**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주택청약 신규 시 2만원 지원

사랑하는 아이에게
미래를 선물하세요!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발행 인구조번복지협회

청소년

2006년 ~ 2017년 출생
(8세~19세)

발행 홀트아동복지회



신분증 하나면 OK!
내 아이 계좌 신규
바로 가기



IBK금융바우처
자세히 알아 보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2223호 (2024.04.15) 게시기한 : 2024.12.31 출금번호 : EZ01985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익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